

한 통의 편지가 단초가 된 미(美) · 소(蘇) 간 군축협상

- I.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
- II. 평화를 호소하는 한 통의 편지
- III. 미국과 소련의 군축협상

한 통의 편지가 단초가 된 미(美) · 소(蘇) 간 군축협상

사람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면서도 상대 국가에 해를 줄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노력한다.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군비증강에 대한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군사력에서 밀리면 상대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해 최소한 상대 국가 정도의 군사능력은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는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자위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막대한 자금을 무기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 더구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을 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의 정상은 종종 회담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켜왔다. 1973년 6월 16일~24일에는 워싱턴과 산클레멘테에서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만나 핵전쟁방지협정 및 SALT-II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며, 1974년 6월 27일~7월 3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만나 지하핵실험제한조약과 ABM(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 조약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4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76년에는 헬싱키에서 포드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 만나는 등 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어이없게도 미·소 양국에 핵전쟁의 공포를 확산시켰고, 이 공포는 무기개발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지속시켰다.

그러한 때 미국의 10세 소녀 서맨사 스미스(Samatha Smith)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1.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커져갔다. 이에 따라 동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련의 지원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1947년에는 그리스의 친서방 정부가 무너질 위협에 처했고, 터키는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던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¹⁾을 발표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터키와 그리스에 군대를 파견하고 물자를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했다. ‘트루먼 독트린’은 이후 30여 년간 미국 외교의 기본정책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다. 각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주의가 자리잡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친미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947년 6월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²⁾을 발표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서유럽 나라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³⁾를 만들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회원국에 군사적으로 공격하

1)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 당시 공산주의 폭동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그리스 정부와 지중해에서 소련의 팽창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터키에 대해 즉각적인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했다(위키백과, ‘트루먼 독트린’ 참조).

2)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6월, 황폐화된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미국의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발표한 총 1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원조계획. 공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이며, 미국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4년간 서유럽 16개국에 130억 달러를 무상 원조하였다(브리태니커백과, ‘마셜플랜’ 참조).

3)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체결한 북대서양 조약의 수행기구. 1949년 4월에 조인하고 같은 해 8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다. 1952년 2월 그리스와 터키, 1955년 5월 서독, 1982년 5월 스페인, 1999년 3월 체코·폴란드·헝가리가 가입하였다. 프랑스는 NATO 회원국으로 남아 있었으나, 1966년 NATO통합군에서는 탈퇴하였다(두산백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참조).

는 것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었다.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상비군도 두었다. 이에 소련은 NATO에 대항하기 위해 동유럽 동맹국들과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WTO)⁴⁾를 결성했다. 이로써 유럽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가지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1949년 8월에 있었던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소식은 미국을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된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다. 대대적으로 군비를 늘렸으며,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 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직접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전쟁과 같다고 하여 ‘냉전’이라고 불렸다. 1950년대 냉전은 더 격렬해져 미국 내에서는 군비 증액과 강력한 무기의 개발을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은 1952년 11월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소련도 다음해인 1953년 8월에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핵무기 개발 경쟁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1호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으로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소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57년 11월 3일 이번에는 떠돌이 개 라이카(Laika)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 발사에 성공했다. 라이카는 더위와 스트레스 때문에 단 몇 시간 만에 죽었지만 스푸트니크 2호는 세계 최초로 생물이 실렸던 우주선이 되었으며, 이 성공은 유인 우주선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1950년대 말까지 소련은 우주개발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혼란에 빠졌다.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된 기술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미국은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미국 해군은 밴가드로켓을 1957년 12월 6일에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1958년 1월 25일에 있

4) 제2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동서대립 속에서 서독의 재무장과 NATO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8개국의 총리가 1955년 5월 11일~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 체결한 군사동맹조약기구. 조약체결국은 소련·폴란드·동독·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체코슬로바키아의 8개국이었으나, 알바니아는 소련과 의견을 달리하여 1968년 9월에 탈퇴하였다.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하면서 동독이 탈퇴하였고 1991년 4월 1일 해체되었다(두산백과, ‘바르샤바조약기구’ 참조).

있던 두 번째의 밴가드로켓도 실패했다. 그러나 1958년 1월 31일 캘리포니아대학 소속의 제트추진연구소가 만든 익스플로러(Explorer) 1호의 발사는 성공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 1958년 6월 2일에는 ‘타도 소련’을 외치면서 오늘날 세계 항공우주의 메카로 자리잡은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⁵⁾을 창설했다.

그런데 소련은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Vostok) 1호를 발사하였다. 유리 가가린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권에 진입하여 1시간 48분 동안 지구를 일주한 뒤 예정지에 도착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다. 미국은 스푸트니크호 때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우주개발경쟁에서 소련을 뛰어넘을 것을 주문했고, 참모들은 NASA가 비상계획 추진에 착수한다면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미국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케네디의 숙원은 이루어져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Apollo) 11호의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렸다.

1980년대 초, 소련은 군대와 군수품 비축을 늘렸다. 이에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 직후 미국 군대를 대규모로 늘렸다. 그리고 카터 행정부가 중단하였던 B-1 폭격기 생산계획을 재개하였고, LGM-118A 피스키퍼 미사일⁶⁾을 생산했다. 또한 순항 미사일을 유럽에 설치하였고, 우주에 기지를 두어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는 전략방위구상⁷⁾이른바 ‘별들의 전쟁(Star Wars)’⁸⁾을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상태는 더욱 심해졌다.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하여 RSD-10 파이어니어 탄도 미사일⁷⁾을 배치하자, NATO는 MGM-31 퍼싱 미사일⁸⁾과 순항 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였다. 이처럼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립하였다.

5) NASA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와 스푸트니크 2호 발사에 성공하자 자극받은 미국이 대규모 우주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미국항공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1958년 6월 2일 설립한 대규모 우주활동기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비군사적인 우주개발을 모두 관할하고 종합적인 우주계획을 추진하고 있다(NAVER 지식백과, ‘미항공우주국’ 참조).

6) 1개의 피스키퍼 미사일은 1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탄두들을 각기 다른 목표물에 떨어뜨릴 수 있다. 각 탄두는 히로시마 원폭의 25배 위력을 가지고 있다.

7) 소련의 트럭 이동식 중거리 탄도 핵미사일

8) 미국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 핵미사일

II. 평화를 호소하는 한 통의 편지

1980년대 들어 세계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개발 및 군비경쟁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겨누었고, 언론은 연일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실시되는 공습 대비훈련으로 미국 사람들은 곧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소련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으며,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잃을까봐 불안에 떨었다.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던 1982년 11월 소련의 서기장 안드로포프에게 한 통의 편지⁹⁾가 전해졌다. 그 편지의 주인공은 서맨사 스미스라는 미국의 평범한 10세 소녀였다.

“친애하는 안드로포프 서기장님께.

저는 서맨사 스미스이며 10살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지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쟁을 할까봐 걱정해왔습니다. 서기장님은 정말 전쟁을 하길 원하시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서기장님이 세계 혹은 최소한 우리 미국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께서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 서맨사 스미스 올림

서맨사 스미스는 자신의 편지가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에 실렸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안드로포프의 답장이 곧 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주미 소련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안드로포프 서기장의 답변편지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그녀는 편지를 보낸 지 5개월이 지난 1983년 4월 26일, 안드로포프 서기장의 답장¹⁰⁾을 받았다.

9) “서맨사 스미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B%A7%A8%EC%82%AC_%E C%8A%A4% EB%AF%B8%EC%8A%A4(검색일: 2014. 5. 7.)

10) “서맨사 스미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B%A7%A8%EC%82%AC_%E C%8A%A4% EB%AF%B8%EC%8A%A4(검색일: 2014. 5. 7.)

“친애하는 서맨사 양에게.

최근 저는 서맨사 양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맨사 양은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소설인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베키를 닮은, 용감하고 정직한 소녀 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 소련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맨사 양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서맨사 양의 질문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기에, 저는 정직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예, 서맨사 양. 소련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이걸 모든 소련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위대한 창시자 레닌이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하죠.

소련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습니다. 42년 전, 세계 정복을 노렸던 나치 독일은 소련을 공격해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불태우고 소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함께 나치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서맨사 양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가깝든 멀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평화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는 더더욱 말이죠.

미국과 소련에는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핵무기 사용을 원치 않습니다. 소련은 절대로 먼저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선언한 바 있으니까요. 우리는 핵무기 추가 개발을 중단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비축 무기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맨사 양이 ‘서기장님이 세계 혹은 최소한 우리 미국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작가, 의사, 어른, 정부 각료 중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밭을 경작하고, 무언가를 건설하고 발명하며, 책을 쓰고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평화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또한 서맨사 양을 위해서도요.

만약 서맨사 양의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서맨사 양을 이번 여름의 적절한 시기에 우리 소련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흑해에서 열리는 국제 어린이 캠프인 Artek에 참가하여 소련의 친구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누구나가 평화와 우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맨사 양의 젊은 시기에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길 바랍니다.”

— 유리 안드로포프

서맨사 스미스는 유리 안드로포프의 초대에 응했다. 소련은 모스크바에 도착한 그녀를 국민으로 대접했다. 안드로포프는 병중에 있어 그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소련에 있는 동안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써주었다. 소련이 그녀를 초청한 데에는 공산 서기장에게 편지를 보낸 미국 소녀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소련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련 정부는 그녀의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하여 여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크렘린궁 등 여러 명소를 방문하도록 배려했다.

1980년대 당시 미국 국민들은 소련에 대해 자유가 없고 어둡고 무섭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서맨사 스미스가 소련을 방문한 후 기자들 앞에서 “소련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함으로써 서방국가 사람들은 소련인도 미국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소련도 역시 평화를 원하는 평범한 국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국가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녀가 이른바 냉전체제에서 데탕트 체제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평화의 상징이자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어린 소녀 서맨사 스미스는 세계 각국을 방문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¹¹⁾ 활발한 평화활동을 벌였다. 그즈음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핵운동이 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맨사 스미스는 13세가 되던 1985년 갑작스러운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서로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에서는 한 소녀의 죽음에 애통해했으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물론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에 이어 소련의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도 서면을 통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시했다.

Ⅲ. 미국과 소련의 군축협상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을 벌였다. 이러한 냉전시대에 미국의 평범한 10세 소녀 서맨사 스미스가 소련의 서기장 안드로포프에게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은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

11) “서맨사 스미스,” 엔하위키 미러, <http://mirror.enha.kr/wiki/%EC%84%9C%EB%A7%A8%EC%82%AC%20%EC%8A%A4%EB%AF%B8%EC%8A%A4>(검색일: 2014. 5. 2.)

다. 더군다나 안드로포프의 답장을 받았다는 것에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서맨사 스미스는 수십년 동안 일체의 교류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미국과 소련을 잇는 최초의 평화사절이 되었다.

서맨사 스미스는 2주 동안 소련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소련에서의 행적은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린 친선대사라 불렀다.¹²⁾ 안드로포프 서기장의 친절하고 자상한 답장내용과 서맨사 스미스가 소련을 방문하는 동안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 등으로 인해 소련에 대한 서방세계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985년 소련의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통해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를 현실화하였다. 초강대국 지위를 놓고 겨루었던 미국과 소련은 양국지도자들이 서로 방문하며 평화협정과 핵전략감축협정까지 맺으며 세계평화 정착에 노력하게 되었다.

1985년 11월 미국과 소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군비 축소에 대한 회담을 열었다. 통역자만을 대동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양국의 핵 비축량을 50% 줄이는 데 합의했다. 두 번째 회담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열렸지만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 문제로 협상에 실패하였으나 1987년에 이루어진 세 번째 협상에서는 중거리 핵 전력 협정이 타결되어 사정거리가 500km~5,500km에 이르는 지상발사 탄도 및 순항 핵 미사일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3일에는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을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가 몰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며, 냉전은 끝이 났다’고 냉전종식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소련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권력을 잃게 되었고, 소련 내부에서도 공화국 간의 유대가 약화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12월에는 소련도 해체되었다.

12) “서맨사 스미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B%A7%A8%EC%82%AC_%EC%8A%A4%EB%AF%B8%EC%8A%A4(검색일: 2014. 5. 7.)

서맨사 스미스의 편지와 활동이 미국과 소련의 군축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에게 핵전쟁에 대한 미국인과 소련인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와 여론에 의해 미국과 소련이 군비 축소 및 핵무기 감축에 대한 회담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담 결과는 미국과 소련만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까지도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미국의 10세 소녀 서맨사 스미스의 꿈과 같은 작은 행동은, 전 세계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Ragone, N., 2012, 『대통령의 결단』, 함규진 역(미래의 창)
2. 전국역사교과서모임, 2010, 『처음으로 읽는 미국사』 (휴머니스트)
3. 최영보 외, 1998, 『미국현대외교사』 (비봉출판사)
4. “냉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3%89%EC%A0%84>(검색일: 2014. 5. 8.)